

# 전북 온동네 돌봄체계 구축

### 전북교육청, '학교늘봄협의체' 신설...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초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늘봄협의체'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지자체·지역돌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과 교육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협의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온동네 돌봄체계' 구축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0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열린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은 늘봄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모델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돌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늘봄지원실장을 중심으로 학교 단위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기초 및 광역 단위 협의체와 연계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주 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새 학기 운영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연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법과 사례가 소개되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돌봄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

행했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학교늘봄협의체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협력 기반"이라며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전주효자초등학교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 나를 지키는 세가지 약속 '서다·보다·걷다'

### 전북교육청,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전주효자초등학교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해 등·하굣길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서다·보다·걷다로 대표되는 안전보행 3원칙 △신호등 준수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반사경인 '헬로카드' 등 안전용품을 배부해 교

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이와 함께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와 적자막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도 병행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AI 중점학교 운영 나서

### 교육혁신 본격 시동... 23일·27일 두 차례 걸쳐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을 위해 중점학교 운영에 나서며 교육 혁신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AI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AI 중점학교 착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중점학교는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접목해 수업과 평가, 학교 운영의 변화를 이끄는 모델이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공모를 통해 선도형 3개교, 중심형 54개교, 문화 확산형 24개교 등 총 81개교를 선정했다.

이번 워크숍은 AI 교육 운영 방향과 목적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신 AI 교육 동향과 전북 지역의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학교별로 교육과정 중심의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초·중·고 학교급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연중 컨설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발성 연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AI 수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워크숍에서 공유된 우수 사례와 운영 노하우는 수업 공개와 권역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학교로 확산해 도내 전반의 AI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이 AI 중점학교를 교육과정 중심의 실질적인 AI 교육 모델로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학생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북형 지역기반 AI 인재 키운다

###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정책 제시... "AI 직접 활용하는 경험이 일상 돼야"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지역기반 AI 인재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정책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배우는 수준을 넘어 AI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경험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육 역시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대학과 연계한 AI 특성화 확대. 고교학점제 내에 'AI 트랙'을 신설해 학생 선택형 진로 과목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해 AI



플리케이션 제작, 로봇·드론 활용 AI 프로젝트 참여 등 실습 중심 활동을 통해 현장형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주도 동아리인 SW·AI 새싹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흥미와 기초 역량을 동시에 키우

는 방침이다.

AI 윤리 교육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기술 활용의 책임과 기준을 함께 교육해 학생들이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편향·차별·허위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질문 능력 등 인간 고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천 예비후보는 "AI 시대에는 직접 부딪히고 만들어보는 경험이 곧 교육"이라며 "윤리 교육 역시 규제가 아닌 이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액정 기반 초고속 박테리아 감지 시스템 개발

### 국립군산대 이만재 교수 연구팀, 포스텍 등과 공동 연구

### 살모넬라균 1분 이내에 감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게재

국립군산대학교염기염색기 연구팀(이만재 교수)은 지난 19일 이차전지에너지학부 이만재 교수(사진) 연구팀이 POSTECH(화학공학과 김영기 교수, 최예나 통합과정), 서울대학교(화학부 손창윤 교수, 이상민 통합과정)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생체분자의 움직임을 거시적 광학 신호로 변환하는 '고감도 액정 기반 광학 변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최근 게재되며 그 학술적·실용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다.

세포막 동역학이나 면역 반응 등 계면에서 발생하는 생체분자 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생물학적 기초 지식의 확장을 물론 바이오센서 및 질병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기술로는 복잡한 생체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학계의 오랜 난제로 꼽혀왔다.

공동 연구팀은 생물학적 조직 내에서 구조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두 아미노산(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이 수용액과 액정(Liquid Crystal) 계면에서 자발적으로 흡착 및 탈착을 반복하며 액정 분자의 배향 변화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실험 결과와 밀도범함수이론(DFT)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결과, 이러한 흡·탈착 동역학이 수용액의 pH 조건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더 나아가 연구팀은 이들 아미노산이 살모넬라,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의 박테리아 부산물과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결합할 때, 계면 흡착이 촉진되고 안정화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주변 생체분자의 유무와 특성에 따른 계면 동역학의 변화를 시각적인 광학 신호로 즉각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액정 기반 인식 시스템은 감염 유발 용량의 10% 수준인 크리틱(10<sup>7</sup> cfu/ml)의 살모넬라균을 1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 신호로 보고하는 압도적인 민감도와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

이는 결과를 얻기까지 최소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기존의 표준 검사법(PCR, ELISA 등)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성과로,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수적인 식품 안전 검사 및 수질 모니터링 현장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 우석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선정

### 임상 실사용 데이터 기반 범용 AI 모델 개발 등 3개 과제 수행

우석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되며 미래 유망 분야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26년도 1차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에서 총 3개 과제가 선정돼 약 14억8,000만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과제는 임상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화 관리 시스템 구축, 심혈관 질환 치료 후유증 예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승호 과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화 관리 시스템 구축, 심혈관 질환 치료 후유증 예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신진희 과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화 관리 시스템 구축, 심혈관 질환 치료 후유증 예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황인현 과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화 관리 시스템 구축, 심혈관 질환 치료 후유증 예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신진희 간호학과 교수는 신진연구 유형B 과제로 선정돼 개인 맞춤형 노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기술과 예방 전략의 효과를 분석한다.

황인현 약학과 교수는 핵심연구 유형A 과제로 선정돼 인체 내 비효율적 변환으로 생성되는 유독물질을 규명하고 합성해 심혈관계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나선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과제 선정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연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진희 과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화 관리 시스템 구축, 심혈관 질환 치료 후유증 예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황인현 과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화 관리 시스템 구축, 심혈관 질환 치료 후유증 예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과제 선정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연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 순회점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을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점검 중심 방식에서 한가야 맞춤형 컨설팅을 병

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내,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부담감염 유해요인 조사 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현장 예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점검 대상은 학교와 교육기관 등 총 90곳이다.

/오상근 기자



군산학생교육문화관 초등생 안전체험교육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생명 보호 능력 향상에 나섰다.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시작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운영되며, 초등학교 3~4학년 약 2,700명이 총 43회에 걸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과,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완강기·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재 대응 교육이 추가돼 안전체험관과 시청각실에서 실습 중심 교육이 강화됐다. 이론과 체험을 병행해 실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자기 보호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숙 관장은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